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 5개 노선에 시험서비스 추가

기상청(청장 장동연)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길안내기(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를 12월 2일(월)부터 전국 5개 노선에 확대하여 제공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교통량이 많고 노선 길이가 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으로, 기존에 서비스 중인 중부내륙선, 서해안선과 함께 31개 재정고속도로 중 50% 이상의 구간(총 4,100 km 중 2,109 km)에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 정보'를 길안내기(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대책기간(11.15.~다음 해 3.15.)에,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기상청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하에 고속도로 전원, 통신, 시설물 등 도로 기반 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6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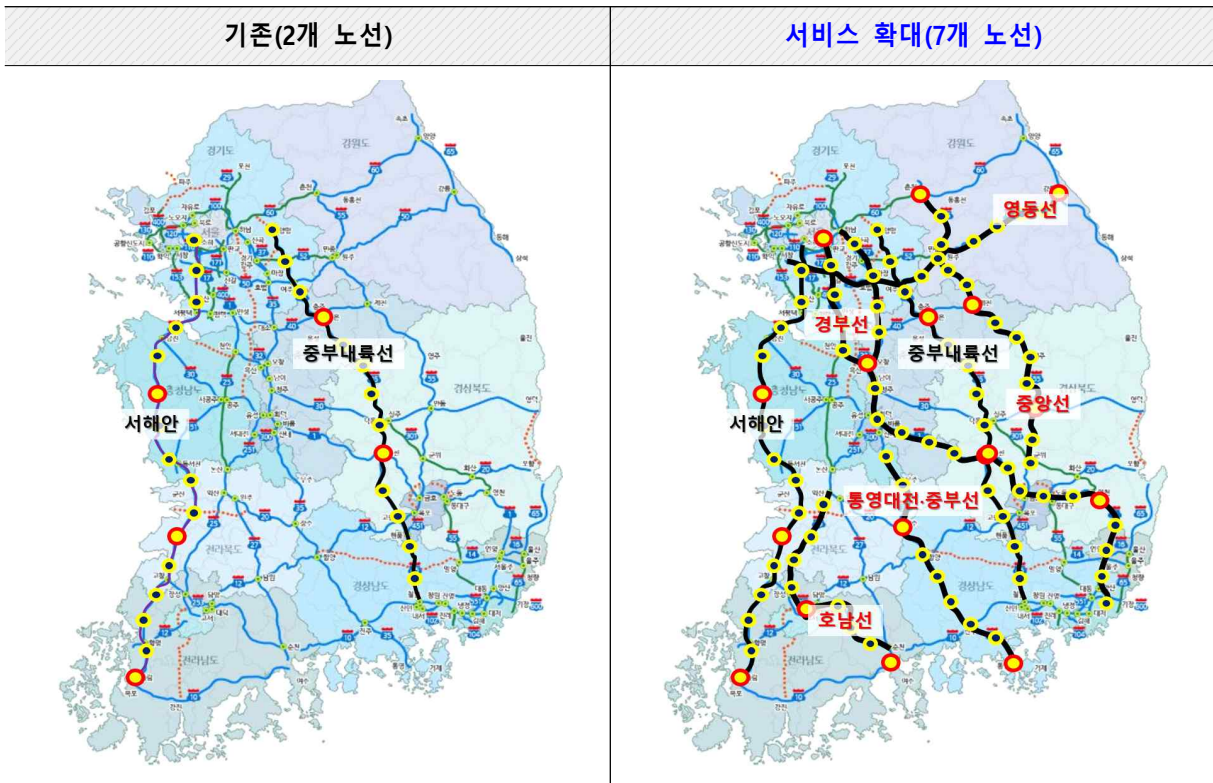
장동연 기상청장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되어 운전자들에게 전방의 도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 운전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노선 및 길안내기 표출 예시

담당 부서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기만 (042-481-7340)
		담당자	사무관	나현종 (042-481-7341)
<공동>	예보국 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2181-0492)
		담당자	사무관	윤영승 (02-2181-0506)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노선>



<도로위험 기상정보 길안내기 표출 예시>

